

떼노츠띠뜰란 내부 구조와 왕위 선출 간의 관계*

이 종 득

덕성여자대학교

이종득(2017), 「떼노츠띠뜰란 내부 구조와 왕위 선출 간의 관계」, 이베로아메리카연구, 28(3), 145-181.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메쉬가가 툴라또아니 체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떼노츠띠뜰란의 내부 구조를 분석하는데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시기 별로 왕위 선출방식과 계승체계를 규명한다. 떼노츠띠뜰란의 툴라또아니 체제는 왕을 중심으로 구성된 중앙조직과,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된 4개 지역 깡뽀리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그리고 왕의 모계 혈통을 비롯해 왕비의 혈통에 따라 중앙조직의 권력 집단이 변화했고, 중앙조직과 4개 지역 깡뽀리 간의 관계 또한 바뀌었다. 1-3대 왕 시기에는 이주 과정에 형성된 집단지도체제적 특성이 강해 왕의 선출과 국정 운영이 이원 체제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었고, 왕위 계승은 전통적인 부자계승을 유지했다. 4-5대 왕은 아스까뽀쌀꼬 연합체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쓰꼬아뜰과 목떼수마 일루이까미나가 차례대로 왕위에 올랐고, 또 다른 전쟁 영웅, 툴라까엘렐은 씨우아꼬아뜰 직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이쓰꼬아뜰 왕 시기에 왕실위원회가 만들어져 왕이 될 수 있는 혈통과 자격을 제한했다. 6-11대 왕들은 3인(이쓰꼬아뜰, 목떼수마 일루이까미나, 툴라까엘렐)이 맺은 밀약에 따라 이쓰꼬아뜰 왕의 아들과, 목떼수마 일루이까미나 왕의 딸 사이에 태어난 후손들에서만 형제 계승방식에 따라 왕들이 선출되었다. 반면에, 4개 지역 깡뽀리들의 정치 영향력은 4-5대 왕 시기부터 약화되기 시작해, 이후에는 왕권 경쟁을 비롯해 왕위 선출과정에서 소외되며 전통적인 집단지도체제적 특성을 상당 부분 상실했다.

핵심어 메쉬가, 왕위 선출체계, 툴라또아니 체제, 떼노츠띠뜰란의 내부 구조

* 본 연구는 2016년도 덕성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I. 머리말

메쉬꼬-떼노츠티틀란(México-Tenochtitlan)을 건립(1325년)한 이후, 아카마피츠티틀리(Acamapitzli)를 왕으로 추대하며 메쉬까는 집단지도체제에서 벗어나 틀라또아니(tlatoani: 왕) 체제를 받아들였다. 이후 스페인 정복자들에 의해 멸망할 때(1521년)까지 총 11명의 왕이 떼노츠티틀란과 그 연합체를 통치했다. 그런데 떼노츠티틀란은 북쪽 지역에서 내려온 이주 집단의 영향으로 왕위 선출방식을 비롯해 계승체계가 당시 삼각동맹국(Texcoco, Tlacopan)의 경우와 비교해 특이하게 발달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메쉬까가 틀라또아니 체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떼노츠티틀란의 내부 구조를 분석하는데 있다. 떼노츠티틀란의 틀라또아니 체제는 메쉬까·꿀우아(mexica·culhua) 혈통의 새로운 왕을 중심으로 구성된 중앙조직과, 다양한 집단으로 형성된 4개 지역(nauhcampan) 갈빨리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그리고 왕의 모계 혈통뿐만 아니라 왕비의 혈통에 따라 중앙조직의 권력 집단이 변화했고, 중앙조직과 4개 지역 갈빨리 간의 관계 또한 바뀌었다. 사실, 메쉬까의 가족제도는 일부다처제였고, 왕족 간의 결혼이 대부분 정략결혼이었기 때문에 많은 계파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목적은, 앞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기 별로 왕위 선출방식과 계승체계를 규명하는 데 있다. 특히, 이쓰꼬아틀 왕 시기에 3인(Itzcóatl, Moctezuma Ilhuicamina, Tlacaélel) 간에 맺은 밀약의 실체를 밝히고, 왕위 계승체계가 부자계승이 아닌 형제계승으로 변화한 원인을 찾는다.

메소아메리카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역사적 사건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고문서와 연대기 기록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게다가, 거의 대부분의 사료가 정복 이후의 기록이고, 사료 간에도 내용의 불일치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또 다른 어려움은, 여러 고문서와 연대기에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다양한 기록을 찾아내 분류하고, 이를 재구성하는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왜곡 문제이다. 이런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료 간의 철저한 비교를 바탕으로 역사적 사건과의 연계 정도를 비롯해, 연대기 작성 시기와 종족 별 차이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한다. 무엇보다도 테노츠띠플란의 내부 구조를 종족 별로 구분하고, 중앙조직을 직제와 인물들의 혈통을 바탕으로 접근하는 것은 기존 연구에 비해 다소 색다르지만 현재까지 발굴된 사료의 한계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런 방법론은 기존 연구에서 밝혀내기 어려웠던 새로운 역사적 실체를 드러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플라또아니 체제의 도입: 아까마삐츠플리 왕

쿨우아칸(Culhuacán)에 예속된 티사판(Tizapan)에서부터 메쉬까를 이끌었던 테노츠(Tenoch)가 1363년에 사망했다. 그리고 테노츠띠플란은 이주 시기의 군사·종교 지도자 체제에서 벗어나 아까마삐츠플리를 1대 왕으로 추대(1367년)하며 플라또아니 체제로 전환했다(Alva 1992, 78; 85).¹⁾ 다시 말해, 톨쌀란 아까쌀란(Toltzalan Acatzalan)이라 불렸던 3개 섬에 정착한 지 42년 만에 명실상부한 도시국가(tlatocayotl)로 변신한 것이었다.²⁾ 그런데 의아스럽게도 아까마삐츠플리 왕은 순수 메쉬까가 아니었고, 외부에서 영입된 인물이었다. 당시 이주 집단 내에는 정치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여러 가문들(Tenoch, Cuauhtloquetzqui, Acacitli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도시국가의 왕족 혈통이 섞인 아까마삐츠플리를 왕으로 추대한 이유는 무엇인가?

당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까마삐츠플리 왕의 혈통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아까마삐츠플리 왕의 혈통과 관련해 사료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크게 2개의 유형으로 압축된다. 첫 번째 유형을 대표하는 사료는 메소소목과 두란의 기록이다. 이 기록들에 따르면, 아까마삐츠플리 왕의 부친은 메쉬까(Opochtli Itztahuatzin)로 티사판에 정착해 있을 당시 이름이 알려진

-
- 1) 역사적 사건을 비롯해 왕의 즉위 연도 간의 편차가 고문서와 연대기 사이에 큰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도 표기가 연구 내용과 관련성이 적은 경우에 일반화된 연도를 사용한다.
 - 2) 당시 메쉬꼬-테노츠띠플란은 아스까뽀빨꼬(Azcapotzalco)에 예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시국가의 정확한 정체는 예속도시국가(cuauhtlatocayotl)였다.

전사였고, 모친은 꼴우아칸 왕(Cóxcotli)의 딸(Atotoztl)이었다(Alvarado 1992, 52; Durán 1995, 95; 98). 더 나아가 18세기 말의 예수교 사제 클라비헤로(Clavijero)는, 오쁘츠평리의 부친은 쏘빵꼬(Tzompanco)의 왕(Tochpanecatl)이었고, 모친은 메쉬까였다고 기록했다(Javier 1987, 74). 동일 유형의 3개 기록을 종합해 보면, 아까마삐츠평리 왕은 부계와 모계 쪽으로 각각 쏘빵꼬와 꼴우아칸의 왕족 혈통을 지닌 메쉬까(tzompanca·mexica·culhua)였다.³⁾

반면에, 익스플릴소치틀(Fernando de Alva Ixtlilxóchitl)이 남긴 3개 연대기에 따르면, 아까마삐츠평리 왕의 부친은 아스까뽀쌀꼬의 왕(Aculhua)이었고, 모친은 메쉬까였다(1985a, 314, 409; 1985b, 29, 35).⁴⁾ 그러나 이런 유형의 기록은 다른 사료들과의 총체적인 비교를 통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지만 부계 혈통을 당시 정치 영향력이 강했던 도시국가에서 찾았다는 측면에서 첫 번째 유형과 공통점도 있다.

사실, 메쉬까는 외부에서 가장 늦게 멕시코 분지 내로 진입한 소수 이방 종족이었다. 따라서 힘 있는 도시국가의 정치적 지원 없이는 멕시코 분지 내외에 형성되어 있던 패권·예속의 정치체제로 편입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결국, 메쉬까는 멕시코 분지 내로 진입한 이후부터 다른 도시국가의 왕족 혈통이 섞인 인물을 지도자로 추대하며 정통성을 갖춘 새로운 왕족 혈통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처음으로 다른 도시국가(Tzompanco 혹은 Xaltocan) 왕족의 혈통이 섞인 우이쉴리우이틀(Huitzilíhuitl)이 8대 지도자로 선출되었다(Garibay(ed.) 1973, 45, 49).

이런 시도는 피사판에서도 은밀히 지속되었다. 멕시코 분지 내 도시국가들의 연합공격으로 차빨테펙에서 쫓겨난 이후, 거의 괴멸되어 떠돌다 피사판에

3) 차빨테펙(Chapultepec)에서 쫓겨난 이후 메쉬까와 쏘빵꼬 간의 교류는 거의 사라지고, 쏘빵꼬의 영향력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런 점을 고려하고 연구의 편의를 위해 아까마삐츠평리 왕의 혈통을 ‘메쉬까·꼴우아’로 표기한다.
 4) 익스플릴소치틀이 남긴 3개 기록은 다음과 같다(인용 순): “Sumaria relación de las cosas de la Nueva España”, “Relación sucinta en forma de memorial”, “Historia de la nación chichimeca”.

갖 정착했을 때였다. 페노츠를 비롯한 메쉬까 지도부가 비밀리에 페스꼬꼬의 왕(Quinatzin)을 찾아가 그의 아들을 왕으로 추대하겠다고 하며 허락을 요청했다 (Alva 1985a, 312-313). 외부 왕족 혈통의 인물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시도는 페노츠띠플란 정착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자신들이 예측되어 있던 아스까뽀쌀꼬의 왕(Tezozómoc)에게도 수차례에 걸쳐 요청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플라텔롤꼬(Tlatelolco)가 페소소목 왕의 아들(Cuacuauhpitezhuac)을 왕으로 추대(1350년)하는데 성공한 반면에, 페노츠띠플란은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Tena(ed.) 2004, 77-81). 도시국가의 면모를 갖추지 못한 페노츠띠플란에서 페소소목 왕의 아들들은 왕 노릇을 하려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⁵⁾ 그래서 페노츠띠플란은 피사빠 사건 이후 관계가 나뉘었던 꼴우아칸의 왕에게 접근하기에 이르렀다.

1. 페노츠띠플란의 내부 구조: 중앙조직/4개 지역 깡뽀리

당시까지도 페노츠띠플란에서는 깡뽀리 간의 이합집산으로 형성된 집단지도체제가 유지되고 있었다. 따라서 새로운 플라또아니 체제는 당시 깡뽀리들 간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깡뽀리 수장(calpólec)들의 정치적 위상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두란의 기록만을 참고하면, 아까마뽀츠프리를 왕으로 추대하는 과정이 초기 이주 집단 중심으로 수월하게 진행된 것처럼 보인다. 초기 이주 집단의 지도자들(지도층 6명, 우이쉴로보츠프리 신관 4명)이 합의하여 아까마뽀츠프리를 왕으로 추대했기 때문이다.⁶⁾ 하지만 페소소목의 기록을 분석해 보면, 당시 페노츠띠플란의 내부구조는 단순하지 않았다.

메쉬꼬-페노츠띠플란 건립(1325년) 이후, 우이쉴로보츠프리 신전을 중심으

5) 플라텔롤꼬 왕의 동생들(Tlacoten, Teuhtlehuatzin)이 페노츠띠플란을 잠시 통치한 적도 있었지만, 일찍 사망하거나 왕위를 포기하고 아스까뽀쌀꼬로 되돌아갔다 (Tena(ed.) 2004, 39; 83).

6) 아까마뽀츠프리를 왕으로 선출한 지도자 6명과 신관 4명의 이름은 각각 다음과 같다. Acaçitli, Tenoch, Meçi, Ahuexotl, Ocelopan, Teçacatetl / Cuauhtloquetzqui, Ocoçal, Chachalaitl, Axoloua(Durán 1995, 98).

로 도시를 4개 지역(Cuepopan, Teopan, Moyotlan, Aztacalco)으로 분할할 당시 메쉬까의 깔뽀리는 총 14개였다.⁷⁾ 그리고 14개 깔뽀리는 초기 이주 과정에서 페노츠띠플란 정착까지의 시기에 따라 크게 3개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집단은 초기 이주 과정에서부터 있었던 5개 깔뽀리(Tlacoachcalco, Cihuatecpan, Tlacatecpan, Yopico, Izquitla)이다.⁸⁾ 두 번째 집단은, 빠스꾸아(Pázcuar)로 호수 사건 이후에서 말리날꼬(Malinalco) 사건 사이에 새로 합류한 5개 깔뽀리(Tzomolco, Tezcacoac, Tlamatzinco, Molocotitla, Coatl Xoxouhcan)이다.⁹⁾ 마지막 집단에는 말리날꼬 사건 이후 새로 합류한 3개 깔뽀리(Chalmecâ, Coatlan, Chillico)가 속한다. 이 3개 깔뽀리는 메쉬까가 멕시코 분지 내로 진입한 이후 합류한 토착 깔뽀리로 여겨진다. 로페스 아우스틴(López Austin)이 지적했듯이, 페노츠띠플란의 모든 주민이 메쉬까가 아니었다. 주민들 중에는 오토미를 비롯해 쏘치밀까나 우에호썩까도 있었기 때문이다(1996, 194). 게다가 일부 메쉬까가 페노츠띠플란에서 이탈해 플라멜롤꼬를 건립(1337년)했고, 아스까뽀쌀꼬 왕의 아들을 왕으로 추대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테빠네까(tepaneca) 혈통이 섞인 새로운 집단이 형성되었다.

두란은, 아까마베츠플리 왕의 추대를 비롯해 국정 운영이 집단지도체제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고, 초기 이주 집단이 정치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것으로 서술했다. 이에 반해, 반 잔트비크(van Zantwijk)는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이

7) 당시 깔뽀리는 다음과 같다: Tlacoachcalco, Cihuatecpan, Tlacatecpan, Yopico, Tezcacoac, Tlamatzinco, Mollocotitlan, Chalmecâ, Tzomolco, Coatlan, Chillico, Izquitlá, Milnahuc, Coatl Xoxouhcan(Alvarado 1992, 74). 이 깔뽀리들은, 일부 메쉬까가 분리해 나가 플라멜롤꼬를 건립(1337년)하기 이전의 깔뽀리들이다.

8) 미초아칸(Michoacán)의 빠스꾸아로 호수에서 일부 메쉬까를 떼어 놓기 이전에 존재했던 깔뽀리는 다음과 같다: yopica, tlacoachcalca, Huitznahuac, Cihuatecpaneca, tlacatecpaneca, izquiteca(Alvarado 1992, 26-27). 이 기록에서 페소소목은 깔뽀리 총 수를 7개로 언급했지만, 그 이름을 기록할 때는 6번째 깔뽀리를 누락했다.

9) 말리날꼬 사건을 통해 우이쉴로뽀츠플리는 다른 깔뽀리들의 수호신들에 대해 종교·정치적 우위를 차지했다. 당시 깔뽀리는 다음과 같다: yopico, tlacoachcalco, Huitznahuac, tlacatecpan, Tzomolco, Atempan, Tezcacoac, Tlamatzinco, Molocotitla, Nonoalco, Cihuatecpan, Izquitlan, Milnahuc, Coatl Xoxouhcan, Aticpac(Alvarado 1992, 32).

스우아떼삿 고문서 *Códice de Izhuatepec*』를 근거로, 아까마삿츄뜰리 왕의 부친 (Opochtli)이 토착 세력인 찰만 깔뽀리의 사제였고, 아까마삿츄뜰리 또한 찰만 깔뽀리의 지도자 중 한명이었다는 주장을 펼쳤다(1982, 22-23). 그리고 아까마 삿츄뜰리 왕의 추대를, 2개 집단(이주 집단/토착 집단 “chinampaneca 혹은 chalmeca”)간의 연합으로 해석하고, 페노츠뽀뜰란의 정치권력이 이주 집단에서 메쉬까·꼴우아 혈통의 아까마삿츄뜰리 가문과 찰만 깔뽀리로 이전되었다고 주장했다(1982, 25). 이러한 반 잔트비크의 주장은 메소아메리카 학계에서 오랫동안 정설로 여겨져 왔다. 이를 바탕으로 부에노(Bueno)는, 이주해 온 메쉬까가 찰만 깔뽀리(꼴우아와 치남빠네까로 구성)와 오토미(otomí) 깔뽀리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었다고 주장했다(2007, 103).

당시 페노츠뽀뜰란의 뜰라또아니 체제는, 아까마삿츄뜰리가 왕으로 즉위할 당시의 상황을 상형문자로 그린 『아스까띠뜰란 고문서』를 통해 알 수 있다. 상형문자를 분석해 보면, 당시 정치체제는 아까마삿츄뜰리 왕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중앙조직과, 이주 집단 중심의 4개 지역 깔뽀리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무엇보다도 씨우아꼬아뜰(cihuacóatl)과 유사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아까씨뜰리(Acacihtli)가 초기 이주 집단 출신이었다. 그리고 4개 지역 깔뽀리 수장들(Epcoatl, Xomimitl, Xiuhcaque, Calpilcatl) 또한 각각 초기 이주 집단의 4개 깔뽀리(Tlacoachcalco, Yopico, Izquitlan, Cihuatecpan)의 지도자들이었다(1949, 98-101). 반면에, 중앙조직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상형문자를 해독하기 어렵다. 단지 메쉬까·꼴우아 계열의 인물들이 아까마삿츄뜰리 왕을 보좌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왕이 이끄는 중앙조직이 4개 지역 깔뽀리보다 상위개념이었지만 정치적 우위를 확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두란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앙조직과 4개 지역 깔뽀리 간의 합의에 따라 아까마삿츄뜰리 왕의 왕비를 맞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왕비(Illancueytl)의 나이가 많았고 불임이기까지 했다. 따라서 아까마삿츄뜰리 왕은 초기 이주 집단의 지도층 딸들과 다시 결혼을 해야만 했다(Durán 1995, 99). 이런 사실들을 고려하면, 반 잔트비크의 주장과 달리 왕권을 비롯해 왕을 지지

했던 깔빨리의 정치적 기반이 다른 깔빨리들에 비해 우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실, 아까마삐츠틀리 왕 시기 내내 전통적인 집단지도체제적 특성이 유지됐고, 왕의 권력도 4개 지역 깔빨리 수장들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했다.

2. 이안꾸에이들의 등장과 새로운 연합(메쉬까-꿀우아/초기 이주 집단)

아까마삐츠틀리 왕과 관련해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인물이 있다. 일반 역사서에서 보통 서술 없이 지나치거나 이름만 언급되는 아까마삐츠틀리 왕의 부인 이안꾸에이들이다. 이 왕비와 관련해 두란의 기록이 가장 구체적이지만 여러 사료에 파편적으로 산재해 있는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새로운 사실들을 찾을 수 있다. 먼저, 페노츠피틀란의 지도층이 처음부터 이안꾸에이들을 아까마삐츠틀리 왕의 부인으로 합의한 것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테빠네키가 도시국가(따꾸바, 아스까뽀쌀꼬) 왕들의 딸을 염두에 두었었다(Javier 1987, 74-75). 아까마삐츠틀리 왕의 추대를 달갑지 않게 보는 아스까뽀쌀꼬의 페소소목 왕을 달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메쉬까의 요청은 일언지하에 거절당했고, 오히려 페소소목 왕은 자신의 허락 없이 왕을 추대한 페노츠피틀란에 공물을 두 배로 부과했다(Durán 1995, 100-101).

따라서 페노츠피틀란의 지도층은 왕비를 다른 곳에서 구해야만 했다. 그런데 꿀우아칸을 비롯해 꼬아틀린찬의 왕족 혈통이 섞인 이안꾸에이들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¹⁰⁾ 게다가, 이안꾸에이들은 아까마삐츠틀리 왕보다 나이가

10) 이안꾸에이들의 혈통과 관련해 사료마다 내용이 달라 혼동스럽다. 하지만 크게 두 가지 유형(꿀우아칸 왕의 딸, 꼬아틀린찬 왕의 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에서는 꿀우아칸 왕의 이름에서 차이(Nauhyotl, Achitómed)가 있지만, 페소소목을 비롯해 두란과 익스틀릴초치틀의 기록이 이 유형에 속한다(Alvarado 1992, 81-85; Durán 1995, 98-99; Alva 1985a, 409; Alva 1985b, 36-37). 반면에, 가리바이 편집 기록을 비롯해 끌라비헤로의 기록과 「꾸아우피틀란 연대기」는 이안꾸에이들이 꼬아틀린찬 왕(Acolmiztli)의 딸이라고 기록했다(Garibay(ed.) 1973, 57; Javier 1987, 74-75; Feliciano(ed.) 1992, 29).

이안꾸에이들 혈통의 예처럼 사료마다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아 페노츠피틀란 연구

많았고, 아이를 낳지 못했다. 여러 사료들을 종합해 보면, 이안꾸에이틀은 일반적인 보통의 왕비가 아니라 플라또아니 체제가 처음 도입되었던 시기에 특정 역할을 수행했던 인물이었다. 그 역할은 가리바이(Garibay)가 편집한 초기 기록에 잘 나타난다. 이안꾸에이틀이 메쉬까의 지도자였기 때문이다(1973, 57). 그리고 「꾸아우띠플란 연대기」에서는 이안꾸에이틀이 아까마삐츠플리를 왕으로 임명했다는 기록도 찾을 수 있다(Feliciano(ed.) 1992, 31). 다시 말해, 집단 지도체제에서 플라또아니 체제로 전환하는 시기에 이안꾸에이틀이 지도자로서 중심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이다. 반면에, 후기 연대기인 페소소목의 기록은 조금 다르게 서술한다. 이안꾸에이틀은 아까마삐츠플리의 이모였고, 아까마삐츠플리를 양아들로 삼아 키우다 이후에 아까마삐츠플리의 부인이 되었다는 것이다(Alvarado 1992, 84-85). 앞의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아까마삐츠플리가 왕으로 즉위하기 이전에, 꼴우아칸과 꼬아뜰린찬의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이안꾸에이틀이 모종의 역할을 수행했고, 플라또아니 체제가 페노츠티플란에 정착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여겨진다.

당시 페노츠티플란에는 페빠네까 세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해 있었다. 무엇보다도 메쉬까가 아스까삐쌀꼬의 영지에 정착했고, 형제 도시국가인 플라렐롤꼬가 아스까삐쌀꼬 왕의 아들을 왕으로 추대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플라렐롤꼬 왕의 동생들(Tlacoten, Teuhtlehuatzin)이 페노츠티플란을 잠시 통치한 적

자들은 자주 애크를 먹는다. 이런 상황에 봉착하면 연구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론이 있다. 먼저, 사료들 간의 비교를 바탕으로 역사 사실과의 연계 정도를 추정하며 총체적인 시각에서 접근한다. 예를 들면, 꼬아뜰린찬 왕(Acolmiztli)의 첫째 아들(Cóxcoc)이 꼴우아칸의 왕이었다는 역사적 사실(Alva 1985b, 29)을 고려하며 두 도시국가간의 혈연관계를 조사하면, 내용이 매우 달라 보이는 2개 유형(꼴우아칸, 꼬아뜰린찬) 사이에 일관되는 공통점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대부분의 고문서와 연대기들이 역사적 사건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식민 초기에 쓰여 졌고, 도시국가와 종족들의 시각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 사료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는 상당 부분 여기서 발생한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여러 사항들을 고려하며 총체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면 ‘부족하나마’ 과거의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는 탈출구를 찾을 수 있다. 물론, 이런 방법론이 항상 유효적절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현재로선 찾기 어렵다.

도 있었다. 더 나아가 플라텔롤코의 왕(Cuacuauhpitzáhuac, 메소소목 왕의 아들)이, 아까마삐츠플리가 왕으로 즉위할 때까지 메노츠티플란을 통치했었다는 기록도 발견된다(Tena(ed.) 2004, 83). 따라서 아까마삐츠플리를 왕으로 추대하는 과정은 두란의 기록처럼 수월하지 않았다. 오랜 기간에 걸쳐 메빠네카 세력과 메쉬까-꿀우아 세력 간에 치열한 힘겨루기가 있었고, 결국 초기 이주 집단과 손잡은 메쉬까-꿀우아 세력이 승리했던 것이다. 그 혼돈의 중심에 이안꾸에이틀이 있었다.

초기 이주 집단과 메쉬까-꿀우아 집단 간의 연합은 다음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안꾸에이틀이 자식을 낳지 못하자, 아까마삐츠플리 왕이 초기 이주 집단의 지도자들(Tecatet, Ahuexotl, Ocelopan, Tenoch, Aatl, Cuauhtloquetzqui)의 딸들과 결혼을 했기 때문이다(Durán 1995, 99).¹¹⁾ 이 사건을 메딘(Medin)은 여러 집단 간의 이해관계가 조율된 것으로 단순하게 해석했다(2009, 83). 그러나 내부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초기 이주 집단과 메쉬까-꿀우아 집단 사이의 새로운 결합이며 정치 균형점이 형성된 것이었다. 그리고 플라또아니 체제의 중앙조직에서 밀려난 초기 이주 집단이 딸들을 통해 플라또아니 체제의 중심부와 연결되기 시작한 사건이었다. 동시에 초기 이주 집단은, 플라또아니 체제의 새로운 정치 환경에서 직면했던 정치적 불안감과 불만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메쉬까-꿀우아 세력이 힘을 얻는 사건이 발생했다. 꿀우아칸의 왕(Achitómetl)이 사망한 이후, 꿀우아칸은 종교 문제로 내분을 겪으며 쇠락의 길을 걷다 아스까뽀쌀꼬에 의해 멸망했기 때문이다. 아스까뽀쌀꼬의 예속도시 국가였던 메노츠티플란 또한 이 전쟁에 참여했고(Alva 1985b, 36-37), 이안꾸

11) 사료의 한계가 있지만 이안꾸에이틀과 관련해서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 이안꾸에이틀이 자식을 낳지 못했다고 기록한 두란조차도 자신이 확인한 다른 고문서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고문서에 따르면, 이안꾸에이틀은 아까마삐츠플리 왕과 결혼하기 이전에 꼬아플리찬의 왕과 먼저 결혼을 했다. 그러나 반란이 일어나 남편이 사망했고, 왕위를 물려받은 아들의 신변도 위협해지자 자신의 고향인 꿀우아칸으로 피신했다(Durán 1995, 167).

에이플 왕비가 꼴우아칸 왕의 딸이라는 혈통을 근거로 아까마삐츠플리 왕이 꼴우아칸 왕을 겸직하게 되었다(Alva 1985a, 314-315). 이 사건을 계기로 메쉬까-꼴우아 세력의 정치 영향력이 크게 증가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 메쉬까는 페노츠티플란을 톨떼까 전통의 적법한 계승자로 내세웠고, 더 나아가 자신들을 꼴우아라 부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엄밀히 말하면, 플라또아니 체제의 중심조직을 차지했던 메쉬까-꼴우아만이, 톨떼까 문명을 계승한 꼴우아칸과 혈통적으로 관련이 있었다. 반면에, 당시 대부분의 깔빨리들을 구성하고 있었던 이주 집단은 톨떼까 문명과 전혀 관련이 없었다. 사실이야 어떻든 간에 꼴우아칸의 왕을 아까마삐츠플리 왕이 겸직하면서 페노츠티플란은, 멕시코 분지 내외의 패권을 차지한 이후에 역사와 종교 체계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마련했다.¹²⁾

III. 꾸아우틀로께쓰끼 가문의 등장: 우이쉴리우이틀 왕

플라또아니 체제를 도입했지만 우이쉴리우이틀(Huitzililhuitl) 왕 시기까지도 왕권은 강화되지 못했다. 4개 지역 깔빨리들의 정치 영향력이, 메쉬까-꼴우아 중심의 중앙조직과 팽팽한 균형을 이뤘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를 왕위 선출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라미레스 고문서』에 따르면, 아까마삐츠플리 왕이 사망하자 귀족뿐만 아니라 일반 평민도 참여해 우이쉴리우이틀(재위기간: 1391-1417)을 왕으로 선출했기 때문이다(1979, 47). 다시 말해, 중앙조직과 4개 지역 깔빨리들이 왕위 선출에 참여했다. 그런데 『플라델롤코 연대기』에 따르면, 아까마삐츠플리 왕이 사망한 이후 4년이 지나서야 새로운 왕을 선출할 수 있

12) 이 시기부터 톨떼까 전통의 신들(께쌀꼬아틀, 페스까플리뽀까 등)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이후에는 이주 과정의 주요 인물들과 역사적인 사건들(치말마, 믹스꼬악, 꼬아떼베 사건, 우이쉴로뽀츠플리 탄생 신화, 페노츠티플란 건국신화 등)이 톨떼까 신화와 연계되어 신화화했다. 그리고 아스까뽀쌀꼬 연합체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멕시코 분지 내외를 3등분하며 삼각동맹을 맺을 당시(1431년)에 이쓰꼬아틀 왕이 남부 지역을 꼴우아-톨떼까 지역으로 묶으며 꼴우아 떼꾸플리(Culhua Tecuhtli)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역사적 배경에 근거한다.

었다(Tena(ed.) 2004, 85). 종합해 보면, 아까마베츠플리 왕은 생전에 자신의 후계자를 지명할 수 없을 만큼 왕권이 취약했다. 그리고 아까마베츠플리 왕 사후에 왕위 계승을 놓고 여러 집단 간에 치열한 권력 투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결국, 왕권 경쟁에서 승리하며 새롭게 등장한 세력은, 메쉬까-꿀우아 집단과 손을 잡은 초기 이주 집단의 꾸아우플로게스끼(Cuauhtloquetzqui) 가문이었다. 우이쉴리우이플 왕의 모친이 우이쉴로보츠플리의 신관인, 꾸아우플로게스끼의 딸(Cocatlamihuatzin)이었기 때문이다(Durán 1995, 99-100).¹³⁾ 다시 말해, 우이쉴리우이플 왕의 등장은 메쉬까-꿀우아 세력과, 초기 이주 집단의 특정 가문 사이의 새로운 정치적 연합이었다.

현재까지도 많은 연구자들은 우이쉴로보츠플리 신관 직위를 오랫동안 유지한 꾸아우플로게스끼 가문에 대해 그다지 주목하지 않고 있다. 분서사건 이후 재구성된 역사 서술에서 주요 인물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저평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기록(치말빠인과 떼소소목 기록, 『플라멜롤꼬 연대기』)을 종합해 보면, 꾸아우플로게스끼 가문은 말리날꼬 왕족의 혈통을 비롯해 우이쉴로보츠플리의 신화적 혈통과도 연계되어 있었다. 우이쉴로보츠플리의 누이(Malinalxoch)와 말리날꼬의 왕(Chimalcuauhtli) 사이에 태어난 꼬벨(Copil)의 딸(Xicomoyahualtzin)이 꾸아우플로게스끼와 결혼을 했기 때문이다(Cuauhtlehuanitzin 1991, 131; Tena(ed.) 2004, 45, 59; Alvarado 1992, 31, 45). 따라서 꾸아우플로게스끼의 딸은 다른 가문들에 비해 혈통적으로 유리했다. 물론, 더 결정적인 요인은 꾸아우플로게스끼 가문의 정치 영향력이 크게 성장한 데에 있었다. 사실, 꾸아우플로게스끼 가문은 오랫동안 우이쉴로보츠플리 신관 직을 유지했고, 메쉬까의 이주 과정과 떼노츠피틀란 정착 과정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무엇보다도 떼노츠피틀란 건국의 주역이었다.¹⁴⁾

13) 우이쉴리우이플 왕의 모친을 이안꾸에이플로 보는 기록(“Relación sucinta en forma de memorial”)도 있다(Alva 1985a, 409). 그러나 이 기록은, 떼노츠피틀란의 내부 구조를 비롯해 종합적인 상황과 맞지 않아 거의 폐기된 상태이다.

IV. 메쉬까-떼빠네까 세력의 등장: 치말보또까 왕

우이쉴리우이뜰이 왕으로 선출되면서 메쉬까-꼴우아 세력에 초기 이주 집단
 단의 특정 가문(꾸아우플로게스끼 가문)이 합세하며 플라또아니 체제가 변화
 를 맞았다. 그러나 4개 지역 깡뵤리들의 정치 영향력은 축소되지 않았다. 이들
 과의 합의에 따라 선출된 우이쉴리우이뜰 왕이 미혼이었고, 아스까보쌀꼬 왕
 (떼소소목)의 딸(Ayauhziuatl)과 결혼을 해야만 했기 때문이다(Durán 1995,
 107-109). 이 정략결혼과 더불어 플라또아니 체제에 떼빠네까 세력이 끼어들
 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메쉬까-꼴우아’-떼빠네까 세력이 크게 활성화되기 시
 작했다. 무엇보다도 떼노츠띠뜰란이 아스까보쌀꼬의 영지였고, 형제의 도시
 플라렐롤꼬의 왕이 아스까보쌀꼬 왕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속도가 남달랐다.
 결국, 떼노츠띠뜰란은 메쉬까-꼴우아 세력과 이주 집단, 그리고 ‘메쉬까-꼴우
 아’-떼빠네까 세력으로 크게 나뉘어져 각축을 벌이게 되었다.¹⁵⁾

14) 꾸아우플로게스끼 가문의 활동을 중점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대표적인 연대기는 두
 란과 떼소소목의 기록이다. 메쉬까를 이끈 2대 지도자로 처음 등장한 이래
 (Cuauhtlehuantzin 1991, 61; Tena(ed.) 2004, 55), 꾸아우플로게스끼 가문 사람들은
 주요 역사적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신관으로서 우이쉴로보츠뜰리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했다.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은 다음과 같다: 빠스꾸아로 호수 사건(Durán 1995,
 72-73), 말리날꼬 사건(Durán 1995, 72-74; Alvarado 1992, 27-31), 꼬아떼뵤 사건
 (Durán 1995, 75-77; Alvarado 1992, 29, 36-37), 차뵤떼뵤 꼬뵤 사건(Durán 1995,
 80-81; Alvarado 1992, 43-44), 피사뵤 사건(Durán 1995, 84-87; Alvarado 1992, 54-
 63), 떼노츠띠뜰란 건국과 도시 건설(Durán 1995, 87-94; Alvarado 1992, 62-75). 그
 런데 두란과 떼소소목의 기록에서는 특이한 역사 서술 방식이 발견된다. 꾸아우플로
 게스끼 가문의 신관 중심으로 우이쉴로보츠뜰리와 연계된 역사가 서술되고, 당시 지
 도자들의 이름이나 역할은 거의 언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앞의 기록들과는 달리 신화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떼노츠띠뜰란 건국에서조
 차도 우이쉴로보츠뜰리와 꾸아우플로게스끼를 언급하지 않는 기록들이 있다. 익스
 뜰릴쓰치뜰과 끌라비헤로의 기록을 비롯해, 『플라렐롤꼬 연대기』와 『꾸아우뜰란
 연대기』가 대표적이다. 특이한 것은, 이런 기록들에서는 떼노츠띠뜰란 건국신화의 토
 대가 되는 꼬아떼뵤 사건을 비롯해 차뵤떼뵤 꼬뵤 사건조차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이런 유형의 기록에 『플라렐롤꼬 연대기』가 있다. 떼노츠띠뜰란과 동일
 한 종족이었던 플라렐롤꼬의 연대기에 이런 신화적인 요소가 부재하다는 것은 다음
 사실을 말해 준다. 두란과 떼소소목의 기록은 꾸아우플로게스끼 가문의 후손들이 권
 력의 중심에 있었을 때에 뜰떼까 신화와 연계시켜 재구성한 역사이다.

이 시기에 페노츠띠뜰란은 정략결혼을 통해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며 아스까뽀쌀꼬 주축의 연합체에 안착했다. 무엇보다도 우이쉴리우이뜰 왕과 결혼한 왕비(페소소목 왕의 딸)를 통해, 아스까뽀쌀꼬에 바치는 공물을 파격적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Durán 1995, 109-111). 그리고 법령을 공포하며 도시국가 체계를 마련했다. 당시 우이쉴리우이뜰 왕이 정복한 지역을 보면, 주로 테빠네까와 아꼐우아 지역으로 새로운 패권도시국가를 열망하던 아스까뽀쌀꼬의 급격한 팽창과 맞물려 있다.¹⁶⁾ 다시 말해, 페노츠띠뜰란은 아스까뽀쌀꼬의 급속한 팽창이 낳은 최대 수혜 도시국가였다. 이와 더불어 중앙조직에서도 메쉬까-테빠네까 세력이 빠르게 부상했다.

결국, 급성장한 메쉬까-테빠네까 세력은, 정치적 우위를 점하며 페소소목 왕의 딸이 낳은 치말뽀뽀까(Chimalpopoca, 재위 기간: 1415-1427)를 3대 왕으로 추대하는 데 성공했다.¹⁷⁾ 물론, 메쉬까-테빠네까 세력과 메쉬까-꼐우아 세력, 그리고 초기 이주 집단 사이에 격렬한 왕권 경쟁이 있었다. 우이쉴리우이뜰 왕 사후 4년이 지나서야 치말뽀뽀까를 왕으로 선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Tena(ed.) 2004, 89). 당시 왕권 경쟁 과정에서 틀라뽀뽀의 도움을 받은 흔적이 발견된다. 틀라뽀뽀 왕의 동생인, 테우뜰레우악(Teuhlehuac)이 페노

15) 우이쉴리우이뜰 왕이 즉위하면서, 메쉬까-꼐우아 세력은 크게 2부류로 나뉘어졌다. 첫째는 초기 메쉬까-꼐우아 세력이고, 두 번째는 ‘메쉬까-꼐우아-꾸아우뜰로계쓰끼 세력이다. 논문 작성상의 편의를 위해 두 집단을 메쉬까-꼐우아로 통칭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구분하여 지칭한다.

16) 우이쉴리우이뜰 왕이 정복한 지역: Toltitlan, Cuahtitlan, Otonpan, Tolantzinco, Acolman(Tena(ed.) 2004, 41).

17) 치말뽀뽀까 왕의 모계 혈통과 관련해서는 크게 3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치말뽀뽀까 왕의 모친을 페소소목 왕의 딸로 보는 경우이다(Durán 1995, 109; Alva 1985a, 409; Alva 1985b, 37). 이 유형의 기록이 가장 적절하고 현재까지도 널리 인정받고 있다. 반면에 페소소목은 치말뽀뽀까 왕의 모친을 틀라꼬뽀(Tiliuhcan Tlacopan)의 첫 번째 왕(Tlacacuitlahuatzin)의 딸(Miahuaxochtzin)로 보고 있다(Alvarado 1992, 89-90). 앞의 2개 유형은 모두 치말뽀뽀까 왕의 모친을 테빠네까로 기록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치말뽀뽀까 왕을 우이쉴리우이뜰 왕의 동생으로 보는 「꾸아우띠뜰란 연대기」와 또르께마다의 기록이다(Feliciano(ed.) 1992, 35; Torquemada 1975-1979, 176). 그러나 치말뽀뽀까 왕의 재위기간을 고려할 때 그 가능성은 매우 떨어진다.

츠띠뜰란에서 플라코츠깔까뜰(Tlacoachcalcatl)을 역임했기 때문이다(Alvarado 1992, 98). 왕권이 취약한 치말뽀뽀까 왕을 보위하기 위해 플라텔롤꼬의 정치적 도움을 비롯해, 떼빠네까 세력이 직접 팔을 걷어 붙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아까마뼈츄뜰리 왕의 아들로 모계가 떼빠네까 혈통인 이쓰꼬아뜰(이후에 4대 왕)이 플라까떼까뜰(Tlacatecatl)을 차지했다(Alvarado 1992, 98).

치말뽀뽀까 왕의 등장과 더불어 떼노츠띠뜰란의 정치권력은, 메쉬까·꿀우아와 초기 이주 집단(꾸아우뜰로게스끼 가문) 사이의 연합에서 ‘메쉬까·꿀우아’-떼빠네까 세력으로 급격히 기울었다. 그러나 이주 집단과 메쉬까·꿀우아 세력의 정치 영향력은 크게 축소되지 않았다. 합의에 따라 선출된 치말뽀뽀까 왕의 나이가 10세(혹은 11세)에 불과했기 때문이다(Durán 1995, 112). 게다가 아스까뽀쌀꼬와의 주요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모친이 이미 사망하고 없었다.¹⁸⁾ 따라서 3개 집단(메쉬까·꿀우아·떼빠네까, 이주 집단, 메쉬까·꿀우아) 간의 합의에 따른 국정운영은 불가피했다. 그 예를 두란의 기록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자신의 딸이 일찍 사망해 혼자 남은 외손자(치말뽀뽀까 왕)를 애지중지 했던 떼소소목 왕을 떼노츠띠뜰란의 지도층은 유효 적절히 이용했기 때문이다. 치말뽀뽀까 왕을 통해 차뽀뽀의 식수를 떼노츠띠뜰란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허락을 요청했고(Durán 1995, 113), 더 나아가 차뽀뽀와 떼노츠띠뜰란을 잇는 수로를 건설해 달라는 무리한 부탁도 했다(Durán 1995, 114-115).

그런데 떼노츠띠뜰란은 치말뽀뽀까 왕 시기에 급성장의 기회를 맞았다. 떼초뜰랄라썬 왕이 사망한 이후 떼스꼬꼬의 왕(Ixtlilxóchitl Ome Toztli)이 치치메까뜰 떼꾸뜰리(chichimecatl tecutli)를 계승(1409년)하자, 이에 반발한 떼소소목 왕이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이 전쟁을 통해 떼소소목 왕은 치치메까뜰 떼꾸뜰리를 탈취하는 데 성공했고, 아스까뽀쌀꼬는 새로운 연합체의 패권 도시국가로 거듭났다. 다시 말해, 멕시코 분지 내외의 패권이 꼬아뜰리찬의 아꿀우아(acolhua)에서 아스까뽀쌀꼬의 떼빠네까로 대체된 것이다. 그리고 아스

18) 치말뽀뽀까가 9살 때에 모친이 사망했다(Durán 1995, 110).

까뽀쌀꼬 연합체 편에 섰던 페노츠띠틀란은 전쟁 승리의 전리품으로 페스꼬꼬를 비롯해 주변 예속도시국가를 받았다(Alvarado 1985b, 53). 익스틀릴쏘치틀 왕을 죽이며 페소소목 왕이 승리하는 데에 큰 기여를 했기 때문이다.

V. 전쟁 영웅의 등장: 이쓰꼬아틀 왕, 목떼수마 일루이까미나, 플라까엘렐

치말뽀뽀까 왕 시기에 페노츠띠틀란은 예속도시국가를 늘려가며 번성했지만 오래지 않아 위기가 찾아 왔다. 페소소목 왕이 1427년경에 사망하자 두 아들(Tayatzin, Maxtla)이 치치메까틀 테꾸틀리의 승계를 놓고 갈등을 빚었기 때문이다. 당시 페노츠띠틀란은 합법적인 계승자였던 파야썬 편에 섰고, 이는 결국 치말뽀뽀까 왕이 막스틀라 왕에 의해 타살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쓰꼬아틀이 왕으로 선출되었다. 두란의 기록만을 보면, 이쓰꼬아틀이 수월하게 왕으로 선출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당시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았다. 치말뽀뽀까 왕이 타살된 이후, 그의 첫째 아들(Xihuitl-Temoc)이 60일간 페노츠띠틀란을 통치했었다는 기록이 발견되기 때문이다(Alvarado 1992, 104-105). 다시 말해, 이쓰꼬아틀(아까마뽀츠틀리 왕의 아들이며 치말뽀뽀까 왕의 삼촌)이 치말뽀뽀까 왕의 아들을 대체한 것이었다.¹⁹⁾

당시 상황은 두란의 기록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치말뽀뽀까 왕이 타살되고 도시국가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에 페노츠띠틀란은 아스까뽀쌀꼬와의 전쟁을 찬성하는 집단과 반대하는 집단으로 크게 양분되었다(Durán 1995, 126). 전쟁을 반대했던 집단은 2-3대 왕 시기에 세력을 구축한 ‘메쉬까·꿀우아’-페빠네까 세력이었다. 이들은 아스까뽀쌀꼬를 도와 페스꼬꼬를 정복하고 익스틀릴쏘치틀 왕을 죽인 주체였으며 아스까뽀쌀꼬의 비호 아래 급격히 성장했다. 따라서 이들 입장에서는 아스까뽀쌀꼬와 전쟁을 할 필요가 없었고, 막스틀라 왕

19) 당시 복잡한 상황과 『메쉬까 연대기 *Anales mexicanos*』를 바탕으로 이쓰꼬아틀이 치말뽀뽀까 왕을 제거했다는 주장도 있다(Medin 2009, 91-92).

에게 우호적인 새로운 왕을 선출하는 것으로 충분했다.

반면에, 전쟁을 강력히 주장한 인물들은 이쓰꼬아틀(Itzcóatl) 왕을 비롯해 목테수마 일루이까미나(Moctezuma Ilhuicamina: 이후 5대 왕)와 플라까엘렐(Tlacaélel: 이후 씨우아꼬아틀)이었다. 당시 전쟁을 주장했던 세력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인의 혈통을 자세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이쓰꼬아틀 왕은 아까마삐츄틀리 왕의 아들이었고, 치말뽀뽀까 왕 체제의 2인자(Tlacatecatl)로 군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리고 모친이 아까마삐츄틀리 왕의 시중을 들었던 아스까뽀쌀꼬 출신의 노예였기 때문에(Durán 1995, 118) ‘메쉬까·꿀우아’-떼빠네까 혈통이었다. 다시 말해, 당시 정치 영향력을 확대해 가던 ‘메쉬까·꿀우아’-떼빠네까 세력의 중심축이었지만, 치말뽀뽀까 왕의 억울한 죽음에 분노해 막스틀라 왕에게 등을 돌린 인물이었다. 반면에 목테수마 일루이까미나와 플라까엘렐은 우이쉴리우이틀 왕의 자식들로 이복형제였다. 이들은 메쉬까·꿀우아 집단과 연합한 꾸아우틀로께쓰끼 가문을 대표하는 인물들이었다. 종합해 보면, 당시 전쟁을 주도하며 승리로 이끈 집단은, 막스틀라 왕에게 등을 돌린 일부 ‘메쉬까·꿀우아’-떼빠네까 세력과, ‘메쉬까·꿀우아’-꾸아우틀로께쓰끼 가문이 주축이 된 연합세력이었다.

일단, 이쓰꼬아틀이 왕으로 선출된 것은, 막스틀라 왕에게 대항했던 일부 ‘메쉬까·꿀우아’-떼빠네까 세력의 집권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이쓰꼬아틀 왕의 나이는 46-47세였고(Alvarado 1992, 98), 떼노츠띠틀란의 군권을 쥐고 있었다. 만약 이쓰꼬아틀이 왕으로 선출되지 않았다면, 메쉬까·꿀우아 세력과 이주 집단이 아스까뽀쌀꼬 연합체에 대항해 115일이나 지속된 대규모 전쟁을 치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여기서 의문이 발생한다. 이쓰꼬아틀 왕의 모친이 아스까뽀쌀꼬 출신의 노예라는 두란의 기록에 반하는 정황이 익스틀릴초치틀의 기록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이 기록에 따르면, 이쓰꼬아틀 왕의 친 여동생이, 합법적인 치치메까틀 떼꾸틀리 후계자였던 페스꼬꼬의 왕(Ixtlilxóchitl Ome Toztli: 네사우알꼬요틀 왕의 부친)과 결혼을 했다(Alva 1985b, 118). 예속도시국가 출신일 뿐만 아

나라, 모계가 노예 출신인 여성이 합법적인 치치메카틀 떼꾸뜰리 후계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당시 관례상 상상하기 어렵다. 여기서 익스틀릴초치틀의 기록(“Historia de la nación chichimeca”)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쓰꼬아틀 왕은 우이쉴리우이틀 왕의 아들이고, 모친은 플라꼬빤 왕(Acolnahuacatzin)의 딸(Tetzihuatzin)이라는 내용이다(Alva 1985b, 37). 다른 사료들과 비교해 보면, 이쓰꼬아틀 왕이 우이쉴리우이틀 왕의 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모친이 플라꼬빤의 왕족 혈통과 연계되었을 가능성은 커 보인다. 이에 대한 강력한 심증은, 무엇보다도 아스까뽀쌀꼬 연합체와 전쟁을 치를 당시 이쓰꼬아틀 왕이 플라꼬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전쟁 승리 이후 삼각동맹의 한 축으로 내세운 데서 찾을 수 있다. 더 이상의 사료는 찾을 수 없지만 이쓰꼬아틀 왕의 모계가 플라꼬빤의 왕족 혈통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²⁰⁾

1. 이쓰꼬아틀 왕 시기의 중앙조직

115일 동안 진행된 아스까뽀쌀꼬 연합체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페노츠 떠틀란의 내부 구조는 급속히 변했다. 전쟁을 주도한 세력이 새로운 중앙권력 집단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당시 플라또아니 체제의 중앙조직을 차지했던 인물들의 혈통을 두란과 떼소소목의 기록을 바탕으로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이쓰꼬아틀 왕 초기의 중앙조직

이름	직위	이쓰꼬아틀 왕과의 관계
Tlacaoeltzin	Tlacochealcatl	조카
Veue Moteucūma	Tlacatecatl	조카
Tlacauepan	Ezuaucatl	형제
Cuatlecoatl	Tlillancalqui	형제
Veueçacan	Tezcacoacatl	조카(목테수마 왕의 동생)①

20) 이쓰꼬아틀 왕은 자신의 모계 혈통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했다. 한 예로, 합법적인 치치메카틀 떼꾸뜰리 계승자였으며, 친외조카인 네사우알꼬요틀(이후에 메스꼬꼬의 왕)을 자신의 연합체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페노츠떠틀란은 아꼐우아간의 여러 도시국가들을 비롯해 플라스칼라 지역의 도시국가들(출롤라, 우에호썩꼬, 플라스칼라)과 찰꼬까지도 끌어들이 수 있었다.

<표 1> 계 속

이름	직위	이쓰꼬아틀 왕과의 관계
Aztacoatl	Tocuiltecatl	조카
Caultzin	Acolnauacatl	확인 불가
Tzonpantzin	Hueiteuctli	형제
Epcotiuatzin	Temillotzin	형제
Çitlalcoatzin	Tecpanecatl	조카
Tlaeloc	Calmimelolcatl	확인 불가
Ixcuetlatoc	Mexicalteuctli	조카②
Cuauhtzitzimitl	Huitznauatl	조카
Xiconóc	Tepanecatlteuctli	조카
Tlaçlteotl	Quetzaltocatl	확인 불가
Axicyotzin	Teuctlamacazqui	조카
Ixuauatilloc	Tlapaltecatl	확인 불가
Mecantzin	Cuauhyauacatl	외손자③
Tenamaztli	Coatecatl	확인 불가
Tzontemoc	Pantecatl	조카(사카의 아들)④
Tlacacoçtloc	Huecamecatl	확인 불가

이쓰꼬아틀 왕 초기에 플라또아니 체제의 중앙 직제는 21개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Durán 1995, 148). 그리고 아스까뽀쌀꼬 정복 당시의 공훈자 명단을 비롯해, 떼소소목의 기록에 산발적으로 퍼져있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찾아 낼 수 있다. 당시 중앙조직 21개 중에서 이쓰꼬아틀 왕의 형제(4명)와 조카(10명) 그리고 외손자(1명)가 15개 조직의 수장을 차지했다.²¹⁾ 물론, 현재까지 발굴된 사료로는 이쓰꼬아틀 왕의 형제들의 모계 혈통을 알 수 없고, 조카들의 경우 또한 부계와 모계를 정확히 규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혈통을 규명할 수 없는 사람도 6명(모두 하부 조직에 해당

21) 21개 직제에 임명된 사람들의 이름은 떼빠넬까 세력의 마지막 보루였던, 꼬요아간을 정복한 이후 발표된 명단에서 찾았다. 당시 이쓰꼬아틀 왕은 공훈에 따라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직위를 분배했다. 임명된 사람들과 이쓰꼬아틀 왕 사이의 관계는 두란의 기록(1995, 129)과 떼소소목의 기록(1995, 96-97, 131)을 비교해 얻어낸 결과이다. <표 1>에서 괄호 숫자의 인용문헌은 순차적으로 다음과 같다(Alvarado 1992, 131, 88, 130, 131).

이나 된다. 그러나 4개 지역 깡뿔리 체제와는 달리, 중앙조직은 아까마삐츠틀리 왕의 후손으로만 이루어진 조직으로 여겨진다. 사실, 1대 왕을 비롯해 2-3대 왕 시기까지도 왕족 혈통의 수가 제한적이어서 직제의 수가 적었고, 일부 인사는 외부에서 영입했었다.

무엇보다도 페노츠띠플란의 군권(Tlacatecatl, Tlacochealcatl)을 모두 전쟁의 주역이었던 목떼수마 일루이까미나와 틀라까엘렐이 각각 차지했다.²²⁾ 그리고 이후에 왕실위원회로 발전하는 4개 직제(tlacochealcatl, tlacatecatl, tlillancalqui, ezhuahuacatl)는 이쓰꼬아틀 왕의 형제 2명과 조카 2명이 분점 했다. 이쓰꼬아틀 왕을 비롯해, 틀라또아니 체제의 중앙조직에 입각한 인물들을 혈통 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쓰꼬아틀 왕은 막스틀라 왕에게 대항했던 일부 ‘메쉬까·꿀우아’-떼빠네까 세력을 대변한다. 현재까지 발굴된 사료의 한계로 모계 혈통을 규명할 수는 없지만 그의 형제들(아까마삐츠틀리 왕의 아들들) 또한 동일 세력일 가능성이 높다. 아스까뽀쌀꼬와의 일전을 주장했고 큰 공훈을 세운 목떼수마 일루이까미나와 틀라까엘렐은 우이쉴리우이틀 왕의 아들들로 이복형제이다. 이들은 메쉬까·꿀우아 세력과 손잡은 꾸아우틀로께쓰끼 가문으로 혈통적으로는 ‘메쉬까·꿀우아’·메쉬까에 속한다. 반면에, 혈통을 확인할 수 없는 6명이 있지만 치말뽀뽀까 왕의 후손(‘메쉬까·꿀우아’-떼빠네까)을 비롯해 떼빠네까 세력과 꿀우아칸 세력은 찾을 수 없다. 이쓰꼬아틀 왕 시기에 모두 급격히 몰락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에서 떼빠네까 혈통인 틀라델롤꼬의 왕(Cuauhtlatō)이 이쓰꼬아틀 왕을 제거하려는 시도가 발생했다(Javier 1987, 107-108). 다른 한편, 중앙조직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4개 지역 중심의 깡뿔리 주장들의 정치 영향력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22) 왕실위원회의 4개 직제는 4개 지역의 수장에 기원을 둔 것으로 여겨진다(Krickeberg 1995, 79, 81). 로베스 아우스틴의 연구에 따르면, 틀라까떼까뜰은 군대를 지휘한 총사령관이었고, 틀라꼬츄갈까뜰은 병참 담당 최고 책임자로 추정된다(Austin 1996, 208). 로베스 아우스틴의 연구 결과는 이전의 역사가 수스텔의 견해와도 일치한다(Soustelle 1983, 59).

2. 3개 가문의 밀약: 왕실위원회

이쓰꼬아틀 왕은 씨우아꼬아틀(cihuacóatl) 직제를 만들어 왕의 정치·행정적 부담을 덜었다. 그리고 아까마쁘즈플리 왕의 후손으로만 제한된, 왕실위원회 4명 중에서 왕을 선출하는 독특한 제도를 만들었다(Durán 1995, 152-153). 언뜻 보면, 왕족 내부의 구성원들에게 비교적 균등하게 정치권력을 배분하고, 왕위 계승이 좀 더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제도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직제 개편의 뒤에는 페노츠띠플란의 권력을 분점하려는 3인(이쓰꼬아틀 왕, 목떼수마 일루이까미나, 플라까엘렐)의 밀약이 숨겨져 있었다. 그러나 왕실위원회의 문제점은 목떼수마 일루이까미나가 왕으로 선출되었을 때는 나타나지 않았다. 페빠네까 연합체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었고, 왕실위원회의 위원(플라까떼까뜰)이어서(Durán 1995, 175) 왕위 계승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귀족뿐만 아니라 평민도 왕위 선출에 참여해 전통 관례상의 절차를 거쳤다(Durán 1995, 175). 다시 말해, 4개 지역 깡뿔리 수장들의 합의까지도 받아낸 것이었다.

당시 상황을 두란은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서술했다. 외견상으로는 목떼수마 일루이까미나 왕의 등장과 더불어, 권력의 중심이 이쓰꼬아틀 왕 중심의 ‘메쉬까·꿀우아’-페빠네까 세력에서 ‘메쉬까·꿀우아’-꾸아우플로계쓰끼 가문으로 넘어갔다. 물론, 이런 사실은 여러 역사적 사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아스플란 원정대 사건’을 통해 우이쉴로쁘즈플리를 아스플란(Aztlán)과 연계시켰고, 우이쉴로쁘즈플리 신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때문이다(Tena(ed.) 2004, 41). 다른 한편으로는 톨떼까의 전통신들을 비롯해 메소아메리카의 전통신 톨랄록이 대신전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안치되었다. 그리고 이주 과정의 인물들과 역사적 사건이 톨떼까 신화와 연계되어 재구성되기 시작했다.

목떼수마 일루이까미나 왕 시기에 플라또아니 체제가 대외 정복을 통해 더욱 강화되었다. 먼저, 땅이 비옥한 찰꼬를 정복했고(1465년), 남쪽(오아하까 방향)과 북동쪽(멕시코 만 방향)으로 진출하는 길목에 위치한 테빠아까(Tepeaca)

를 정복(1466년)했다. 이로 인해 대외원정이 활성화되었고, 정복지의 야오틀랄리(yaotlali)를 비롯해 전리품이 증가하면서 플라또아니 체제의 중앙관리들은 깔빨리의 경제적인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리고 4개 지역 깔빨리들의 정치 영향력이 축소되면서 오랫동안 페노츠띠틀란 정치체제의 근저에 자리 잡았던 집단지도체제적인 특성이 빠르게 사라지기 시작했다.

VI. 2개 가문의 왕권 독점 시기

1. 1세대: 아샤야까틀 왕, 띠속 왕, 아우이쓰틀 왕

목떼수마 일루이까미나 왕이 사망하자 아샤야까틀(Axayácatl, 재위기간: 1468-1481)이 왕으로 선출되었다. 일반 백성을 비롯해 삼각동맹국의 왕도 형식상 참가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Durán 1995, 304-307), 페노츠띠틀란의 왕들 중에서 가장 특이하게 선출된 경우였다. 먼저, 목떼수마 일루이까미나 왕이 사망하기 전에 아샤야까틀을 후계자로 지명했기 때문이다. 페노츠띠틀란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왕실위원회 등은 아샤야까틀의 형(장남)을 선출하려 했지만 목떼수마 일루이까미나 왕의 유지가 관철되었다(Javier 1987, 112). 흥미롭게도 아샤야까틀을 왕으로 강력하게 밀어 붙인 장본인은 플라까엘렐이었다. 두 번째로 특이한 점은, 목떼수마 일루이까미나 왕의 아들 세대를 건너 뛰어 손자 세대로 왕위가 승계되었다는 사실이다. 당시 목떼수마 일루이까미나 왕의 아들(Iquehuac)을 비롯해 아샤야까틀의 삼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세대를 건너 뛴 것은 페노츠띠틀란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한 이유는, 이쓰꼬아틀 왕이 생전에 목떼수마 일루이까미나를 비롯해 플라까엘렐과 맺은 밀약 때문이었다.

사실, 이쓰꼬아틀 왕은 왕위를 자신의 유일한 자식(떼소소목)에게 계승할 수 있었다. 당시 왕위 계승은 전통적으로 부자계승이었고, 페노츠띠틀란도 예외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물론, 4개 지역 깔빨리들의 합의라는 독특한 절차가 있긴 했지만 2-3대 왕 모두 이 전통에서 벗어나 있지 않았다. 그런데 의외로 왕위

가 이쓰꼬아플 왕의 조카인, 목떼수마 일루이까미나에게 계승되었다. 목떼수마 일루이까미나 또한 전쟁 영웅이었기에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당시 전통 관례상 매우 특이한 경우였다. 무엇보다도 이쓰꼬아플 왕 중심의 반 막스플라 집단(‘메쉬까·꿀우아·떼빠네까’)의 몰락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까스파네다(Castañeda)는 매우 설득력 있는 해석을 최근에 내놓았다. 까스파네다의 주장에 따르면, 이쓰꼬아플 왕은 자신의 모친이 아스까뽀쌀꼬 출신의 노예였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떼소소목)이 왕이 되더라도 왕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쓰꼬아플 왕은 자신의 아들(떼소소목)을 목떼수마 일루이까미나의 딸(Atotoztli)과 결혼시키고, 여기서 태어난 자식들을 왕으로 추대하자는 제안을 목떼수마 일루이까미나에게 했다. 그리고 목떼수마 일루이까미나 또한 이 제의를 기꺼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쓰꼬아플 왕은 당시 전통적인 부자계승을 포기하고 조카에게 왕위를 넘겼다(Castañeda mayo-junio de 2017, 14). 사실, 목떼수마 일루이까미나는 전쟁 영웅이었지만 왕위에 오르기에는 혈통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그의 모친이 멕시코 분지 주변의 꾸아우나우악(Cuauhnahuac) 출신이었기 때문이다.²³⁾ 다시 말해, 다른 왕위 경쟁자들에 비해 떼노츠띠플란 내의 지지 세력이 상대적으로 빈약했다. 게다가, 전쟁 승리 이후 이쓰꼬아플 왕 중심의 ‘메쉬까·꿀우아·떼빠네까’ 세력의 정치 영향력이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시기였다. 따라서 목떼수마 일루이까미나의 입장에서는 이쓰꼬아플 왕의 제의를 뿌리칠 이유가

23) 목떼수마 일루이까미나 왕의 모계 혈통과 관련해, 꾸아우나우악 왕(Ozomatziinteuctli)의 딸(Miahuaxihuitl)라는 기록이 가장 신빙성이 높다(Alvarado 1992, 92-95). 반면에, 익스플릴쏘치틀의 2개 기록과 「꾸아우띠플란 연대기」는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 목떼수마 일루이까미나 왕의 부친은 치말뽀뽀까 왕이며, 모친은 플라텔롤꼬의 왕(Cuaquahtipitzáhuac)의 딸(Matlatatzin 혹은 Azta Xochitzin)이다(Alva 1985a, 409; Alva 1985b, 37-38; Feliciano(ed.) 1992, 35). 그러나 두 번째 유형의 3개 기록은 다른 사료들과 종합적인 비교를 해 보면 그 가능성이 희소하다. 목떼수마 일루이까미나 왕의 모친이 꾸아우나우악(현재 꾸에르나바까) 출신인 것이 눈길을 끈다. 당시까지도 왕들의 모계 혈통이 멕시코 분지 밖의 도시국가인 경우가 없었기 때문이다. 우이ץ러우이플 왕이 꾸아우나우악 왕의 딸과 결혼한 것은, 멕시코 분지 내에서 생산되지 않았던 면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없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모계 혈통적인 측면에서 상대적 열위에 있었던 두 가문이 손을 잡으며 새로운 연합을 만들어 낸 것이었다.

이쓰꼬아플 왕과 목떼수마 일루이까미나 사이에 맺은 밀약은, 아샤야까플 왕을 선출할 때에 현실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인물이 있다. 두 가문 간의 밀약을 유지하고 이행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했던 틀라까엘렐이다.²⁴⁾ 두란의 기록에 따르면, 이쓰꼬아플 왕이 사망했을 때뿐만 아니라 목떼수마 일루이까미나 왕이 사망했을 때에도 틀라까엘렐은 한사코 왕위에 오르는 것을 사양했다(1995, 326). 의견상, 왕위를 포기하고 국정 운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장악한 틀라또아니 체제의 2인자로 만족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틀라까엘렐이 딸은 씨우아꼬아플 직위가 왕위 계승과는 다르게 직계 후손(Tlilpotoncatzin, Tlacotzin)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왕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자신의 직계가 씨우아꼬아플 직위를 유지하며 중앙조직의 2인자로 남는 실질적인 선택을 한 것이었다. 결국, 틀라까엘렐 가문도 중앙조직의 권력을 이쓰꼬아플 왕의 후손을 비롯해 목떼수마 일루이까미나 왕의 후손과 분점한 중심세력이었던 것이다.²⁵⁾

아샤야까플 왕은, 과거 전쟁 주역이었던 이쓰꼬아플 왕과 목떼수마 일루이까미나 왕의 양대 가문 사이의 정치적 절충과 합의에 의해 탄생했다. 그리고 틀라까엘렐은 이 밀약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중간자 역할을 맡았다. 그런데 아샤야까플이 왕으로 선출되자 왕권 경쟁에서 밀린 다른 왕족 가문들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특히, 불만을 가장 노골적으로 표출한 인물들은 아샤야까플 왕의

24) 틀라까엘렐은 오랫동안 씨우아꼬아플을 유지하며 왕들이 사망할 때마다 정치적 급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했고, 새로 선출된 왕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

25) 틀라까엘렐 가문은 에르난 코르페스에 의해 테노츠띠델란이 정복되는 마지막까지도 권력의 핵심에 있었다. 틀라까엘렐의 자식들 중 일부만을 떼소소목의 기록을 바탕으로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틀라까엘렐의 첫째 아들(Cacamatzin)은 틀라꼬츠 깔까플을 역임했다. 그리고 까까마신의 첫째 딸은 떼스꼬꼬의 네사우알렐리 왕과 결혼을 했고, 여기서 스페인 정복자들에 의해 타살된 까까마신 왕이 태어났다. 틀라까엘렐의 둘째 아들(Tlilpotoncatzin)은 씨우아꼬아플 직위를 승계했고, 그의 5번째 딸은 목떼수마 쇼꼬요션 왕과 결혼을 했다(Alvarado 1992, 122-129).

형들이었다. 동생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무시했기 때문이다(Alvarado 1992, 114-117). 그러나 아샤야까뜰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자격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었다. 당시 플라까떼까뜰이었고(Javier 1987, 110), 다비에스(Davies)의 연구에 따르면, 나이 또한 19살로 적절했다(1995, 171). 하지만 3-5대의 왕들이 플라까떼까뜰 출신이었다는 관례와, 왕실위원회 4인 중에서 1인이 왕으로 선출된다는 왕위계승방식이 절묘하게 조합된 정치적 결과물이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당시 왕족 내부의 분열과 갈등이 발생했던 흔적은, 아샤야까뜰 왕 시기의 왕실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던 왕족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2〉 아샤야까뜰 왕 시기의 왕실위원회 위원²⁶⁾

	직 위	이름	관 계	참고문헌 (떼소소목의 기록)
1	Tlacateccatl	Iquehuac	목떼수마 일루이까미나 왕의 아들	111-112
		Tzontemoc	Zaca의 아들	131
2	Tlacochealcatl	Auitzotl	8대 왕	115
		Itzcuahtzin	플라렐롤꼬 왕(Tlacateotzin)의 아들	121
		Cacamatzin	플라까엘렐의 첫째 아들	122
		Tlacaeleltzin	플라까엘렐의 손자	123
		Tlachahuapan	아샤야까뜰 왕의 아들	135
		Tepehuatzin	아샤야까뜰 왕의 아들	138
3	Tlailotcatl	Tizoc	7대 왕	115

먼저, 플라또아니 체제의 3인자이며 군 지휘권을 갖고 있던 플라까떼까뜰을 역임한 왕족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초기에는 목떼수마 일루이까미나 왕의 아들(Iquehuac)이 맡았고, 이후에는 목떼수마 일루이까미나 왕의 친동생(Zaca)의 아들 쏬떼목이 맡았다. 아샤야까뜰 왕의 외삼촌과 외당숙이 플라까떼까뜰을 연속으로 맡은 것은, 왕위계승에서 밀려난 두 사람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인

26) 〈표 2〉는 떼소소목의 기록을 바탕으로 만든 명단이다. 현재까지 발굴된 사료의 한계로 4개 위원의 명단이 불완전하지만 당시 상황은 충분히 엿볼 수 있다.

고려로 보인다. 이 두 사람은 아샤야까뜰 왕에 비해 한 세대가 높았고 나이도 많았지만 왕권에 대한 희망만큼은 놓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론론적인 이야기이지만 두 명의 왕족은 대외 정복을 도맡으며 아샤야까뜰 왕의 친권 체제를 구축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²⁷⁾

반면에, 플라또아니 체제의 4인자로 병참 부문을 담당하는 플라꼬즈갈까뜰을 역임한 인물들은 매우 다양했다. 초기에는 아샤야까뜰 왕의 친형(아우이소뜰)이 맡았다. 이 또한 왕위 계승에서 밀린 형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인 고려였다. 이후에 떼삐네키 혈통의 이쓰꾸아우썬을 임명한 것은, 플라텔롤꼬 병합 이후 그 주민들을 통합하기 위한 유화정책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플라까엘렐의 아들과 손자를 거쳐 마지막에 가서야 아샤야까뜰 왕은 자신의 아들들을 플라꼬즈갈까뜰로 임명하며 왕권을 강화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플라까엘렐의 아들과 손자는 선대 3인의 밀약을 충실히 지키며 중간 관리자 역할을 이행했다. 반면에 피속은 정치권력 투쟁에서 상당히 벗어나 플라일로플라까뜰(Tlailotlacatl)을 유지하며 차기 왕을 노리고 있었다.

특이한 점도 발견된다. 현재까지 발굴된 사료가 불충분한 탓도 있겠지만, 왕실위원회에서 이쓰꼬아뜰 왕의 후손들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이들은 아샤야까뜰 왕을 정치·군사적으로 지지한 강력한 집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실위원회에서 아샤야까뜰 왕의 모계 혈통만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이쓰꼬아뜰 왕의 후손들은 4개 지역 깡뿔리를 바탕으로 정치 영향력을 발휘한 것

27) 아샤야까뜰 왕이 삼촌과 당숙을 비롯해 친형들을 제치고 왕이 된 탓에 초기에는 왕권이 상당히 불안정했다. 이런 정치적인 상황은 정복지의 잦은 반란으로도 이어졌다(Durán 1995, 351). 따라서 아샤야까뜰 왕은 각지에서 발생한 반란을 진압하고, 내부 갈등을 잠재우며 왕권을 강화해야만 했다. 즉위 초기에는 위기에 봉착하기도 했다. 왕위 즉위식에 필요한 포로를 생포하기 위해 미초아칸의 타라스꼬(tarasco)를 공격했다가 대패했기 때문이다(Durán 1995, 337-341). 그러나 테스코에서 네사우알꼬요뜰 왕이 사망(1472년)한 이후, 네사우알렐리 왕과 그의 형제들이 벌이는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했고, 플라텔롤꼬 왕(Moquihui)의 모반도 사전에 진압하며 플라텔롤꼬를 테노츠펙틀란에 합병시켰다. 그리고 아샤야까뜰 왕은 꽃의 전쟁을 활성화시켜 자신의 자식들을 비롯해 많은 인재들을 플라또아니 체제의 중심조직으로 흡수해 왕권을 강화했다.

으로 추정된다.

지속적으로 왕위를 노렸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한 비극적인 가문도 있었다. 목떼수마 일루이까미나 왕의 친동생인, 사까의 가문이다. 사까는 이쓰꼬아플 왕 시기에 떼스까꼬아까뜰(Tezcacoacatl)이었고, 목떼수마 일루이까미나 왕 시기에는 플라까떼까뜰로 승진했다. 다시 말해, 차기 왕권에 근접한 가장 강력한 후보자였다. 그러나 사까는 자신의 친형인 목떼수마 일루이까미나 왕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이후에 사까의 아들, 쏜떼목 또한 아샤야까뜰 왕과 띠속 왕 시기에 플라까떼까뜰의 직위를 유지하며(Alvarado 1992, 131), 왕위 계승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었다. 그러나 왕권은 번번이 자신의 사촌인, 아샤야까뜰 왕의 친형제들에게 넘어갔다.

아샤야까뜰 왕 시기에 실체가 드러난 3인의 밀약은 흥미롭게도 새로운 형태의 왕위계승을 낳았다. 아샤야까뜰 왕이 1481년에 사망하자 그의 친형인 띠속(재위기간: 1481-1486)이 왕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왕으로 선출될 당시 플라일로플라까뜰이었기에 자격은 충분했다(Alvarado 1992, 115). 그러나 왕실위원회의 플라까떼까뜰을 왕으로 선출했던 전통 관례를 깬 최초의 왕이었다. 게다가 띠속 왕은 시작부터 불안정했다. 즉위식 행사에 필요한 전쟁 포로를 확보하기 위해 메쓰띠플란(Metztitlan)을 공격했다가 대패했기 때문이다(Durán 1995, 361-363). 이후 떼노츠띠플란을 4년 정도 통치하다 젊은 나이에 사망했다. 두란은 독살설을 제기했고(Durán 1995, 370), 익스뜰릴쏘치뜰은 측근에 의한 살해설과 독살설을 동시에 주장했다(Alva 1985b, 154). 두란은 띠속 왕이 독살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이전 왕들과 비교해 띠속 왕의 대외 정복 활동이 적었고 무기력했다. 우이쉴로쁘츠뜰리 신전 개축도 늦어졌고, 국정 운영 또한 미숙해 띠속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 적었다(Durán 1995, 370). 그리고 간접적으로 독살과 관련된 인물로 띠속 왕의 친동생, 아우이쉴뜰을 지목했다.²⁸⁾

28) 띠속 왕의 독살설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지는 다른 기록도 있다. 연대기 세대의 막내인 포르께마다에 따르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띠속 왕을 죽이려는 이쓰따팔라뻬(Itztapalapan)의 왕(Techohuala)이 플라츠꼬(Tlachco)의 왕(Maxtlato)을 끌

피속 왕이 대외 정복에 소홀했고 무능력했다고 두란이 비판했지만,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면 그렇지만도 않았다. 4년여의 짧은 재위 기간이었지만 피속 왕 또한 여러 지역을 정복했다.²⁹⁾ 그리고 대신전을 크게 개축하기 시작했고, 인신공양 석판도 제작했다. 무엇보다도 독살 당시 피속 왕의 첫째 아들(Yaotzin 혹은 Tepehuantzin)이 플라코츠갈까뜰이었다(Alvarado 1992, 141). 이런 사실들을 고려하면, 피속 왕의 죽음은 대외 정복 활동의 축소에 따른 일부 계층의 불만도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형제간의 권력 암투가 더 큰 요인으로 보인다.

피속 왕이 사망한 이후, 피속 왕의 친동생 아우이소뜰(Auitzotl)이 왕으로 선출되었다.³⁰⁾ 친형제들이 연속 3회에 걸쳐 왕위에 오르는 기이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었다. 이때도 플라카엘렐은 목떼수마 일루이까미나 왕의 유지라며 밀어붙였다(Durán 1995, 372-373, 376).³¹⁾ 물론, 당시 아우이소뜰은 플라카떼까뜰이었고, 대신전의 사제장이었기 때문에(Alva 1985b, 154) 왕위를 승계할 수 있는 자격은 충분했다. 사료의 한계로 왕실위원회 4인을 규명할 수는 없지만, 왕

어 들었고, 이들이 보낸 주술사 여성에 의해 피속 왕이 피를 토하며 죽었다.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체포되어 삼각동맹국의 왕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장에서 처형되었다(Torquemada 1975-1979, 255-256). 이쓰따빨라빠와 플라츠꼬는 당시 네사우알렐리가 왕으로 있던 페소꼬꼬의 예속도시국가들이었다. 사료 부족으로 더 이상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정치적인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

- 29) 피속 왕은 정복 이후 반란을 일으켰던 2개 지역(Toluca, Tecaxic)을 진압했고, 미스떼까 지역(Chillán, Yancuitán)을 비롯해 여러 다른 지역(Mazatlán, Tlalpan, Tamapachco)까지도 정복했다(Javier 1987, 119).
- 30) 당시 아우이소뜰을 왕으로 추대하며 지지한 세력 중에는 새로운 특정 왕족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아우이소뜰 왕이 치말뽀뽀까 왕(3대 왕)의 외손녀와 결혼을 했기 때문이다(Alvarado 1992, 105). 그리고 부에노(Bueno)의 연구에 따르면, 아우이소뜰 왕은 플라렐톨꼬 왕(Moquihuix)과 네사우알꼬요뜰 왕의 딸 사이에 태어난 띠야까뽀싼(Tiyacapantzin)과도 결혼을 했다(2007, 92). 이런 사실들을 고려하면, 오랫동안 정치 권력의 중심에서 배제되어 있었던 치말뽀뽀까 왕의 후손들을 비롯해 테빠네까와 아꼐우아 계열의 특정 가문들이 모종의 역할을 했었을 가능성이 높다.
- 31) 플라카엘렐이 사망한 시기와 관련해 페소소목의 기록과 두란의 기록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페소소목에 따르면 플라카엘렐은 아샤야까뜰 왕 시기에 사망했고(Alvarado 1992, 122), 두란의 기록에서는 아우이소뜰 왕 시기에 사망했다(Durán 1995, 427). 플라카엘렐의 나이를 감안하면 페소소목의 기록이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높다.

위 계승방식의 문제점이 극명히 드러난 사건이었다. 당연히, 당시 상황은 아우이소플 왕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다. 페노츠띠플란의 주요 인물들은 아우이소플의 어린 나이를 들어 반대했고, 삼각동맹국의 왕들도 내키지 않는 추인을 했다(Durán 1995, 372-373). 무엇보다도 아우이소플 왕은 자신의 친형인 락속 왕의 독살에 따른 최대 수혜자였고, 그 주범으로 의심받고 있었다. 따라서 페노츠띠플란의 정치 상황은 불안했고 동요가 일었다.

페노츠띠플란 내부의 반발을 무마하고 왕권을 인정받기 위해 아우이소플 왕은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먼저, 즉위식에 필요한 포로들을 확보하기 위해 멀리 840km나 떨어진 치아빠스(Chiapas) 지역까지 대외 원정을 떠났다(Durán 1995, 378-381). 아샤야까틀 왕을 비롯해 락속 왕의 경우와는 달리 대승을 거두어 체면을 지켰지만, 아우이소플 왕은 오랫동안 대외 정복에만 매달려야 했다. 페노츠띠플란에서 758km 떨어진, 페우안테펙 지역(Tequantepec, Izuatlan, Miauatlan, Amaxtlan)을 비롯해, 1085km 떨어진 현재 과테말라의 쇼꼬누스꼬까지도 대외원정을 떠났다(Durán 1995, 414-419, 445). 그리고 그 공훈을 통해 아우이소플 왕은 내부 반발을 무마시키는 데 성공했다. 역설적이게도 이 시기가 페노츠띠플란 역사에서 제2의 부흥기였다.³²⁾ 활발한 대외 정복으로 연합체의 규모가 두 배로 커졌기 때문이다. 내부적으로는 우이쉴로쁘츄틀리 대신전을 완공(1486년)했고, 대규모 인신공양(80,400명)을 통해 페노츠띠플란의 권위를 세우며 연합체의 결속을 꾀했다. 그러나 정복지가 급증함에 따라 반란 지역의 수도 늘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쇼꼬누스꼬를 정복하고 돌아온 직후, 아우이소플 왕은 병을 앓다 급작스럽게 사망(1502년)했다. 두란은 독살설을 제기했다(Durán 1995, 450).

3명의 친형제가 연속적으로 왕위에 오른 것을 두고, 두란은 이러한 왕위 계

32) 이 시기에 페노츠띠플란의 인구가 급증해 식수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우이소플 왕은 꼬요아칸에서 페노츠띠플란으로 물을 끌어오는 대규모 수로 건설을 했다. 그러나 대홍수가 발생해 페노츠띠플란 전체가 침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Durán 1995, 427-433).

승이 목떼수마 일루이까미나 왕의 유지인 것처럼 애매하게 기록했다(1995, 376). 이로 인해 많은 역사가들은 형제간의 왕위 계승이 선대 3인의 밀약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형제간의 왕위 계승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연배 순으로 왕위에 오르면 될 일이지 굳이 나이가 가장 어린 아샤야까뜰을 먼저 왕으로 내세워 형제간의 갈등을 일으킬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형제간의 갈등이 왕위 계승을 부자가 아닌 형제계승으로 이어지게 만든 주요 원인이었다. 결과야 어쨌든 3명의 왕을 거치면서 메소소목과 아포포스틀리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과, 그 후손들이 다양한 혈통과 결합하며 왕족의 수가 급증했다. 반면에 4개 지역 깰빨리들은 왕권 경쟁에서 소외되었고, 전통적인 집단지도체제적 특성도 매우 약해졌다.

2. 2세대: 목떼수마 쇼꼬요씬 왕, 꾸이틀라우악 왕, 꾸아우떼목 왕

아우이쑈뜰 왕이 독살설에 휩싸여 급작스럽게 사망하면서 형제간에 펼쳐진 내부 권력 투쟁은 일단 종결되었다. 이 시기에 왕위 계승이 전통적인 부자계승에서 형제계승으로 안착했다. 그러나 선대왕들의 형제가 대부분 사망했고 연로했기에 왕위는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어느 왕족에서 왕이 선출되는가가 가장 큰 관건이었다. 결국, 이전 세대의 형제계승 전통에 근거해 아샤야까뜰 왕의 아들, 목떼수마 쇼꼬요씬(Moctezuma Xocoyotzin, 재위 기간: 1502-1521)이 왕으로 선출되었다. 몇 개 안되는 사료들을 종합해 보면, 즉위 당시 목떼수마 쇼꼬요씬은 우이쑈로보츠틀리 신전의 제사장이었고(Alva 1985b, 177), 아우이쑈뜰 왕 시기에 플라꼬츠깁까뜰을 역임하기도 했다(Michel 2014, 82). 두란의 기록을 보면 비교적 수월하게 왕으로 선출되었다(1995, 456-462).³³⁾

목떼수마 쇼꼬요씬이 왕으로 즉위했을 당시의 상황은 아틀리스코(Atlixco) 전쟁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즉위식에 필요한 포로를 생포하기 위해 목떼수마

33) 당시 아샤야까뜰 왕의 자식들은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목떼수마 쇼꼬요씬이 대신전의 제사장인 것을 비롯해, 두 형제(Tlachahuepan, Tepehuatzin)가 플라꼬츠깁까뜰을 역임했기 때문이다(Alvarado 1992, 135-139).

쇼코요씬 왕이 처음으로 치른 전쟁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목떼수마 쇼코요씬 왕을 수행한 인물들은 친형제 3명(이후 왕이 되는 꾸이틀라우악 포함)과 2명의 사촌들(띠속 왕의 아들)이었다(Torquemada 1975-1979, 269-270). 다시 말해, 새로운 권력 집단이 아샤야까뜰 왕과 띠속 왕의 자식들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아우이쑈뜰 왕의 자식들이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독살 설을 포함해 왕위 계승과정에서 목떼수마 쇼코요씬 왕과의 갈등이 깊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아틀리스코 전쟁에서 특이한 일이 발생했다. 목떼수마 쇼코요씬 왕이 자신의 친형(Macuilmalinatzin)을 아틀리스코와의 사전 밀약을 통해 꽃의 전쟁에서 제거했기 때문이다(Alva 1985b, 179). 사실, 마꾸일말리나씬은 왕위 계승과정에서 목떼수마 쇼코요씬 왕의 최대 경쟁자였다.³⁴⁾ 그리고 이 전쟁에서 틀라까떼까뜰이었던, 띠속 왕의 아들(Imactlacuia)도 전사했다(Alvarado 1992, 142).³⁵⁾

아틀리스코와의 전쟁이 끝난 직후, 페노츠띠뜰란에는 숙청의 피바람이 불었다. 목떼수마 쇼코요씬 왕이 자신의 부친(아샤야까뜰 왕)을 포함해 삼촌들(띠속 왕, 아우이쑈뜰 왕) 때부터 있었던 관리들을 모두 자신의 사람들로 교체했기 때문이다. 두란은,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Durán 1995, 467). 그리고 왕궁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본래 귀족 혈통의 적자로 제한하고, 서자를 비롯해 평민 출신의 귀족들을 왕궁에서 방출했다(Durán 1995, 463-466). 당시 상황과 관련해 두란은, 목떼수마 쇼코요씬 왕의 행동에 의아해 하고 부정적인 시각에서 기록했다. 그러나 당시의 급격한 정치 변동은 목떼수마 쇼코요씬 왕이 주도한 급진적인 개혁의 일환이었다. 무엇보다도 기존 관리들의 교체는, 이전 정치 세력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중앙조직을 재정비하며 친정체제를 강화하려는 시도였다.³⁶⁾

34) 자신의 사위였던 마꾸일말리나씬이 억울하게 사망하자, 페스코꼬의 네사우알렐리 왕은 크게 후회했다. 페노츠띠뜰란의 씨우아꼬아뜰과 함께 목떼수마 쇼코요씬을 왕으로 추대하는 데에 일조했었기 때문이다.

35) 이막틀라꾸이아도 목떼수마 쇼코요씬 왕에 의해 제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36) 당시 상황과 관련해 로페스 아우스틴은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아우이쑈뜰 왕 시기에

다른 한편으로는, 목떼수마 쇼꼬요씬 왕과 떼스꼬꼬 왕(네사우알렐리)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네사우알렐리 왕이 사망(1515년)했을 때에 목떼수마 쇼꼬요씬 왕은 떼스꼬꼬 왕위 계승과정에 적극 개입해 자신의 외조카(까까마썬)를 무리하게 새로운 왕으로 밀어붙였다. 이로 인해 네사우알렐리 왕의 자식들(까까마썬, 익스플릴쏘치플) 간의 골육상쟁이 발생했다. 이후 목떼수마 쇼꼬요씬 왕은 1520년 “슬픈 밤(Noche triste)”에 까까마썬 왕과 더불어 에르난 꼬르테스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³⁷⁾

목떼수마 쇼꼬요씬 왕이 타살된 이후에도 앞 세대에 정착한 형제계승이 지켜졌다. 목떼수마 쇼꼬요씬 왕의 동생, 꾸이플라우악(Cuitláhuac)이 왕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이다(Alvarado 1992, 159). 그러나 천연두에 걸려 즉위 80일 만에 사망하자, 이번에는 아우이썬플 왕의 아들인, 꾸아우떼묵(Cuahutémoc)이 왕으로 선출(1521년) 되었다.³⁸⁾ 형제계승에서 벗어나 사촌으로 왕위가 넘어가는 특이한 경우였다. 그러나 에르난 꼬르테스를 중심으로 한, 스페인 정복자들과 원주민 동맹군이 떼노츠띠플란을 공격하며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에 대항해 꾸아우떼묵 왕은 75일 동안 떼노츠띠플란을 지켜냈지만 결국 1521년 8월 13일 생포되었고, 떼노츠띠플란의 플라또아니 체제는 역사에서 사라졌다.

영토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부를 축적한 상인(pochteca)들의 정치 영향력이 커졌고, 평민 출신의 많은 귀족들이 주요 행정직을 맡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정치적인 힘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었다(1996, 196). 다시 말해, 이쓰꼬아플 왕 시기의 개혁에 따라 귀족이 된 평민들의 후손이 목떼수마 쇼꼬요씬 왕 시기에 와서는 플라또아니 체제의 중심조직에서 밀려났던 것이다.

- 37) 목떼수마 쇼꼬요씬 왕의 죽음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설이 존재한다. 그러나 떼스꼬꼬의 왕(까까마썬)과 플라렐플꼬 왕을 비롯해, 떼노츠띠플란의 플라꼬즈깁까플(Itzcuauhtzin)과 더불어 스페인 정복자들에 의해 타살되었다는 기록이 가장 신빙성이 높다(Alvarado 1995, 149).
- 38) 두란의 기록에 따르면, 꾸아우떼묵은 당시 플라렐플꼬의 왕이었고 나이는 18세였다(1995, 622; 630). 익스플릴쏘치플은, 꾸아우떼묵이 당시 이름난 지휘관(capitan)이었고, 대신전의 사제장이었다고 기록했다(Alva 1995b, 236).

VII. 맺음말

멕시코 분지 내로 이주해 온 이후, 메쉬까는 분지 내에 형성되어 있던 패권-예속의 정치체제에 편입하기 위해 꼴우아간의 왕족 혈통이 섞인 아까마베츠틀리를 1대 왕으로 추대했다. 페노츠띠플란이 받아들인 플라또아니 체제는 왕 중심의 중앙조직과,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된 4개 지역 깔뿔리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주 과정에 형성된 집단지도체제적 특성이 강해 왕의 선출과 결혼을 포함해 국정운영이 이원체제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3대 왕(Chimalpopoca) 시기까지 지속되었다.

아까마베츠틀리 왕 시기에 중앙조직은 메쉬까-꼴우아 세력이 장악했고, 이주 집단은 4개 지역 깔뿔리로 편제되며 양측 간의 팽팽한 힘의 균형이 유지되었다. 우이쉴리우이틀이 2대 왕으로 즉위하면서, 우이쉴로보츠틀리 신관 직을 오랫동안 유지했던 꾸아우틀로게쓰끼 가문이 메쉬까-꼴우아 세력과 연합하며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우이쉴리우이틀 왕이 아쓰까뽀쌀꼬 왕(페소소목)의 딸과 정략결혼을 하면서 메쉬까-페빠네까 세력도 빠르게 활성화되었다. 그 결과 ‘메쉬까·꼴우아’·페빠네까 혈통의 치말뽀뽀가가 3대 왕으로 선출되기에 이르렀다. 이 시기에 메쉬까-페빠네까 세력이 중앙조직을 장악하며 세를 확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조직과 4개 지역 깔뿔리 사이에 힘의 균형이 깨지지 않아 왕은 자신의 후계자를 지명할 수 없었고, 중앙조직과 4개 지역 깔뿔리 간의 합의와 전통적인 부자 계승방식에 따라 왕이 선출되었다.

아스까뽀쌀꼬 연합체와의 전쟁을 앞두고 페노츠띠플란은 전쟁을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으로 나뉘었다. 당시 전쟁을 주장하고 승리로 이끈 주역은 4대 왕 이쓰꼬아틀을 비롯해 목떼수마 일루이까미나와 플라까엘렐이었다. 이쓰꼬아틀 왕은 ‘메쉬까·꼴우아’·페빠네까 혈통으로 막스플라 왕에게 반기를 든 일부 ‘메쉬까·꼴우아’·페빠네까 세력의 중심이었다. 반면에, 목떼수마 일루이까미나와 플라까엘렐은 이복형제로, ‘메쉬까·꼴우아’·꾸아우틀로게쓰끼 가문의 혈통이었다. 따라서 이쓰꼬아틀 왕 시기의 중앙조직은 양대 집단의 인물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동안 세력을 과시했던 메쉬까-꼴우아 세

력을 비롯해 메쉬까-떼빠네가 세력은 급격히 몰락했다.

이쓰꼬아틀 왕 시기에 왕을 선출하는 새로운 제도(왕실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이 제도는 중앙 권력을 분점하려는 3인(이쓰꼬아틀 왕, 목떼수마 일루이까미나, 틀라까엘렐) 사이에 맺은 밀약의 결과였다. 그 결과, 모계 혈통적으로 한계가 있었던 두 가문(이쓰꼬아틀 왕과 목떼수마 일루이까미나 왕)이 연합해 6-11대까지 왕권을 독점했고, 틀라까엘렐의 직계 후손들은 왕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씨우아꼬아틀 지위를 마지막까지 유지했다.

따라서 이쓰꼬아틀 왕은 전통적인 부자계승을 포기하고 조카인 목떼수마 일루이까미나(5대 왕)에게 왕위를 넘겼다. 그리고 6대 왕은, 이쓰꼬아틀 왕의 아들(떼소소목)과 목떼수마 일루이까미나 왕의 딸(아또또스플리) 사이에 태어난 아샤야까틀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틀라까엘렐은 두 가문 간의 밀약을 유지하고 이행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맡았다. 3인간에 맺은 밀약이 가능했던 주요 원인은 이들이 전쟁 승리의 주역이었고, 4-5대 왕 시기에 4개 지역 깔빨리들의 정치 영향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물론, 이주 시기의 집단지도체제적인 특성이 페노츠피틀란의 정치체제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지만 그 영향력은 이쓰꼬아틀 왕 이후 빠르게 약화되었다.

중앙 권력이 2개의 가문으로 집중되면서 소외된 왕족들의 불만도 컸지만, 무엇보다도 아샤야까틀 왕의 형제 사이에 심각한 왕권 경쟁을 촉발시켰다. 그 결과, 아샤야까틀 왕의 친형들인, 띠속과 아우이썬틀이 왕으로 연속 선출되면서 전통적인 부자계승이 완전히 사라지고 형제계승의 새로운 전통이 생겨났다. 반면에 왕족 내의 왕권 경쟁과 맞물려 2명의 왕(띠속, 아우이썬틀)이 독살설에 휩싸여 급작스럽게 사망하는 문제점도 나타났다. 이 시기부터 4개 지역 깔빨리들은 왕권 경쟁에서 소외되기 시작했고, 정치 영향력 또한 왕의 권력에 가려 제대로 발휘되지 않았다.

아우이썬틀 왕이 사망하면서 형제간에 펼쳐진 내부 권력 투쟁 시기가 막을 내렸다. 그러나 당시 정착한 형제계승 전통은 다음 세대의 왕들(목떼수마 쇼꼬요신 왕, 꾸이플라우악 왕)까지도 지켜졌다. 반면에, 11대 왕 꾸아우떼목은 특

이하계도 형제계승에서 벗어나 사촌(꾸이플라우악 왕)으로부터 왕위를 넘겨 받았다. 그러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전에 페노츠티플란은 에르난 코르테스에 의해 멸망했고, 플라또아니 체제의 기억은 얼마 안 되는 고문서와 연대기에 신화로 남았다.

참고문헌

- Alva Ixtlilxóchitl, Fernando de(1985a), “Sumaria relación de las cosas de la Nueva España”, *Obras históricas I*, México: UNAM., pp. 261-413.
- _____ (1985a), “Relación sucinta en forma de memorial de la historia de Nueva España y sus señoríos hasta el ingreso de los españoles”, *Obras históricas I*, México: UNAM., pp. 395-413.
- _____ (1985b), “Historia de la nación chichimeca”, *Obras históricas II*, México: UNAM., pp. 5-263.
- Alvarado Tezozómoc, Fernando(1992), *Crónica mexicáyotl*, México: UNAM.
- Bueno Bravo, Isabel(2007), *La guerra en el imperio azteca: expansión, ideología y arte*, Madrid: Complutense.
- Castañeda de la Paz, María(2017), “La casa real de Tenochtitlan: Itzcóatl”, *Arqueología Mexicana*, No. 145, mayo-junio, pp. 14-15.
- _____ (2017), “La casa real de Tenochtitlan: Moctezuma Ilhuicamina”, *Arqueología Mexicana*, No. 147, septiembre-octubre, pp. 14-15.
- Códice Azcatitlan*(1949), París: Sociéte des Americanistes.
- Códice Ramírez*(1979), México: Innovación.
- Cuauhtlehuanitzin, Chimalpain(1991), *Memorial breve acerca de la fundación de la ciudad de Chulhuacan*, México: UNAM.
- Davies, Nigel(1995), *Los antiguos reinos de México*, México: FCE.
- Durán, Diego(1995), *Historia de las Indias de Nueva España e Islas de Tierra Firme I*, México: Consejo Nacional para la Cultura y las Artes.
- Feliciano Velázquez, Primo(ed.)(1992), “Anales de Cuauhtitlan”, *Códice Chimalpopoca*, México: UNAM., pp. 3-68.
- Garibay K, Angel María(ed.)(1973), *Teogonía e historia de los mexicanos*, México: Porrúa.

Graulich, Michel(2014), *Moctezuma: apogeo y caída del imperio azteca*, México: Biblioteca Era.

Javier Clavijero, Francisco(1987), *Historia antigua de México*, México: Porrúa.

Krickeberg, Walter(1995), *Las antiguas culturas mexicanas*, México: FCE.

López Austin, Alfredo; López Luján, Leonardo(1996), *El pasado indígena*, México: FCE; CM.

Medin, Tzvi(2009), *Mito, pragmatismo e imperialismo: la conciencia social en la conquista del imperio azteca*, Madrid: Iberoamericana.

Soustelle, Jacques(1983), *La vida cotidiana de los aztecas en vísperas de la conquista*, México: FCE.

Tena, Rafael(ed.)(2004), *Anales de Tlatelolco*, México: Cien de México.

Torquemada, Juan de(1975-1979), *Monarquía indiana*, México: UNAM.

Van Zantwijk, Rudolf(1982), “La entronización de Acamapichtli de Tenochtitlan y las características de su gobierno”, *Estudios de cultura náhuatl*, México: UNAM, 15, pp. 2-26.

이종득

덕성여자대학교
leejong@duksung.ac.kr

논문투고일: 2017년 11월 12일
심사완료일: 2017년 12월 13일
게재확정일: 2017년 12월 19일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rnal Structure of Tenochtitlan and the Selection of the Successor to the Throne

Jong-Deuk Lee

Duksung Women's University

Lee, Jong-Deuk(2017),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rnal structure of Tenochtitlan and the selection of the successor to the throne",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28(3), 145-181.

Abstract When México-Tenochtitlan was built in 1325 and Acamapitzli was enthroned, Mexica broke from collective leadership and adopted the tlatoani regime. Afterwards, a total of eleven kings ruled Tenochtitlan until it fell to the Spanish conquerors in 1521. Tenochtitlan, which was a city-state mainly made up of a group of people that moved from the northern region, had its succession to the throne including its selection of a royal successor developed in a distinctive manner, when compared to the other members of the Triple Alliance (Texcoco and Tlacopan).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background of the adoption of the tlatoani regime and the internal structure of Tenochtitlan and thereby discover and establish the royal successor selection method and the succession system. After the first king was created from the Mexica-culhua line, the early migrant group grew dominant by the queen's lineage or the new Mexica-tepaneca group dominated the central organization. However, remaining under the influence of the calpulli of the four regions, the kings including the fourth monarch (Itzcóatl) could not appoint his successor, who was selected through agreement of the central organization and the calpulli of the four regions. After the victorious war with Azcapotzalco, Moctezuma Iluicamina, who with King Itzcóatl led the war to their victory, was selected as the 5th king. From this period, the centralization strengthened whereas the political influence of the calpulli of the four regions began to dwindle. The kings from the sixth Axayacatl to the 11th Cuauhtémoc were selected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of the royal committee, which were created during the reign of King Itzcóatl. However, as the regulations were based on the secret pact among the three persons (Itzcóatl, Moctezuma Iluicamina, and Tlacaélel) who led the victorious war, only those offspring of the son of King Itzcóatl and the daughter of Moctezuma Iluicamina, and their descendants became eligible for the throne.

Key words Mexica, election system of the throne, tlatoani regime, internal structure of Tenochtitlan